조지아관광청 with 문의 1800-1454
코카서스 3국 여름여행
7/6, 7/13, 8/10, 8/24 출발 GTG Korea 서울사무소

데뷔 11년 만에 첫 솔로음반 '도시여자' 발표한 **유빈**

'원더걸스' '랩' 내려놓고 온리 보컬…이런 유빈 처음이지?

타이틀곡 '숙녀' 70년대 풍 시티 팝
그룹 해체 후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
완벽하고 싶은 욕심에 복귀 늦어져
원더걸스 멤버들 응원…내게 큰 힘

▲원더걸스 출신 유빈이 데뷔 11년 만에 솔로로 데뷔한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다시 출발점에 선 유빈의 변신에 시선이 모아진다. 사진제공 | JYP엔터테인먼트

'국민 걸그룹'이라 불리던 원더걸스 출신 유빈(30)이 5일 첫 싱글 '도시여자'를 발표했다. 원더걸스로 데뷔한지 11년 만의 홀로서기이자, 작년 1월 팀 해체 발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같은 그룹 출신인 선미, 예은, 해림 등이 이미 가수와 연기자의 길을 활발히 걷는 것에 비하면 유빈의 솔로활동은 좀 늦은 편이다. 발매 당일 서울 성수동에서 만난 유빈은 "완벽하고 싶은 욕심에 조금 더, 조금 더 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원더걸스 해체 후 자신의 색깔과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유빈은 1년 넘게 자신을 옭아맨 "번뇌의 시간"을 보낸 까닭인지, 표정은 홀가분해보였다.

"가수가 꿈인 사람은 솔로음반을 내는 게 가장 큰 목표이자 꿈일 것이다. 데뷔하기 전에는 데뷔가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10년 넘게 활동해온 원더걸스가 없어지면서 내 색깔을 빨리 찾아야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니까 어떤 장르가 나에게 맞는지, 또 어떤 부분을 보여드리면 신선해할까 고민이 많았다. 복잡했지만 하나하나 풀어 가다보니 답이 나왔다."

고민의 흔적은 음반에서 묻어난다. 데뷔음반에는 애초 타이틀곡 '숙녀'와 '도시애' 2곡이 담겼다. 아쉽게도 '도시애'는 저작권 문제로 발표를 연기했다가 6일엔 발매를 취소하기로 했다. 결국 타이틀곡 1곡만이 공개됐지만, 그것만으로도 '솔로가수 유빈'의 색깔을 들여다보기엔 충분하다.

원더걸스 시절 래퍼로 활동했던 유빈은 보컬리스트로 변신했다. 2015년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2에 출연해 래퍼로서 '재발견'을 이뤄냈던 그이지만, 잘하던 랩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중저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처음부터 의도하고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다. 곡의 분위기와 랩이 맞지 않았다. 의외로 제 노래를 신선하게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다. 그룹 활동 때부터 보컬레슨을 받아서 무리는 없었지만 솔로로 처음부터 끝까지 곡을 이끌고 나가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감정이나 음 처리 등에서 디테일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타이틀곡 '숙녀'는 1970~80년대 유행하던 '시티팝' 장르다. 래퍼라는 점에서 "힙합 음악"을 선보일 것이라는 예상은 깨진 것이다. 시티팝은 펑크, 디스코, R&B, 미국 소프트 록 등 다양한 장르가 혼재되어 친숙하고 듣기에도 편안한 장르다.

"워낙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작년에 우연찮게 한 카페에 들렀는데 장필순 선배님의 '어느새'가 흘러나왔다. 너무 좋았다. 이 곡을 시작으로 비슷한 장르의 곡을 찾다보니 김현철 선배님의 곡도 나오면서 시티팝으로 이어지더라. 제 중성적인 목소리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 거다' 싶었다."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만들어낸 시티팝을 위해 유빈은 '뽀글뽀글'한 머리와 '반짝이' 의상, 화려한 색조 화장을 음반재킷 속에 담았다. 무대에서도 이 같은 이미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원더걸스 활동 때에 선보였던 레트로 풍과 분위기가 겹친다. 하지만 유빈은 "원더걸스의 레트로는 색깔로 표현하면 빨간색이다. 강렬하면서 정열적"이라면서 "이번에는 파란색에 가깝다. 청량하면서도 도회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완선 선배님은 원더걸스 '텔미'때부터 참조했다. 민해경, 이지연, 강애리자 선배님 등 과거 활동했던 방송 영상을 모두 찾아봤다. 그 시대를 무대로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1980년대가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다."

솔로로 자리를 굳힌 선미와 예은은 유빈의 색다른 도전에 "멋있다"고 평가했다. '원더걸스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들이기에 같은 비교선상에 놓이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들의 색깔은 분명하지 않나. 저마다 개성이 달라서 비교자체가 불가하다. 너무나도 잘된 그들을 보고 부담이 되기보다는 자극이 된다. 또 큰 힘이 됐다. 서로를 의식하지도 않고 서로 힘이 되는 존재다. 그들의 성공 덕분에 제 솔로활동에도 작은 관심이나 기대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한지민, 현충원서 추모헌시 낭송

배우 한지민이 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헌시를 낭송했다. 한지민은 이날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인 수녀의 '우리 모두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를 낭송했다. 배우 한예리 또한 같은 시각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같은 추모헌시를 낭송했다. 이날 추념식에서 군복무 중인 배우 주원과 강하늘, 임시완, 지창욱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을 함께 했다. 가수 최백호는 '늙은 군인의 노래'를, 장미여관은 현충일 추모곡 '우리 함께'를 불렀다.

방탄, 2주 연속 빌보드 차트 진입

방탄소년단이 3집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로 2주 연속 미국 빌보드 양대 차트에 진입했다. 6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는 빌보드200 6위,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는 핫100 51위에 올랐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2개의 앨범이 연달아 빌보드 싱글 및 앨범 차트에 2주 연속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외에도 3집은 인디펜던트앨범 1위, 월드앨범 1위, 톱 앨범 세일즈 3위 등을 기록 중이다. 소셜50에서 77번째 1위를 달성했으며, 아티스트100 차트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이영애 출연 '이몽' 내년 방송

이영애가 출연하는 드라마 '이몽'이 건국 100주년 기념드라마로 2019년 방송된다. '이몽'은 일제강점기 서울과 만주, 그리고 중국 상하이를 배경으로 펼치는 첩보 멜로 드라마로 독립투쟁의 최선봉이었던 비밀결사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 일본인에게 양육된 조선인 외과의사 이영진(이영애)이 상하이임시정부의 첩보요원이 되어 태평양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활약하는 블록버스터 시대극이다. 김원봉 역을 비롯해 주요 배역들 캐스팅이 진행중이며 올 가을 몽골, 상하이 등의 로케이션을 시작으로 본격 촬영이 시작된다.

승리, 8월 데뷔 첫 솔로 콘서트

빅뱅 승리가 데뷔 12년 만에 첫 솔로 콘서트를 개최한다. 승리는 8월4·5일 이틀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첫 단독 콘서트 '승리 2018 퍼스트 솔로 투어-더 그레이트 승리인 서울'을 벌인다. 이번 콘서트는 '빅뱅 막내' '사업가 승리'가 아닌 '솔로 아티스트'로 그의 무대를 만나는 자리로 마련된다. 라이브 밴드 연주와 DJ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음악 구성을 통해 색다른 무대와 함께 승리의 톡톡 튀는 개성과 실력을 발휘하는 즐거운 무대 연출을 준비하고 있다. 입대 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 승리는 7월 초 첫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형원, 2년 연속 '울트라 코리아' 무대

그룹 몬스타엑스의 형원(DJ H.ONE)이 EDM 축제 '울트라 코리아'에 2년 연속 출격한다. '울트라 코리아'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가운데 형원은 이틀째인 9일 매직비치 스테이지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선보인다. 앞서 형원은 지난해 '울트라 코리아'에서 세계적인 DJ 겸 프로듀서 저스틴 오와 협업무대를 펼치며 DJ로서도 주목받았다. 더불어 형원은 지난해 일본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엠넷 '케이콘 2017 재팬 X 엠 카운트다운' 스페셜 무대에도 저스틴 오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디제잉 실력을 드러냈다.